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맡기는 이도 해결하는 이도 바로 자기

믿고 맡김도 망상 아닌지요

문 스님께서는 믿고 맡기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믿고 맡기는 주체는 결국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고정된 실체도 없이 뜬구름 같은 건데 도대체 실체도 없는 마음을 맡긴다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믿고 맡긴다는 것도 하나의 분별 망상이지 않나요? 실제로는 분별 망상도 없는데 말입니다.

답 하나하나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걸 점수(漸修)라 하고, 다 쌓고 마지막에 봉우리까지 올려놓는 걸 돈오(頓悟)라고 합니다. 돈오와 점수가 둘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음자리는 돈오, 점수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모든 걸 지켜보면서 관하라'고 하면, '뭐 지켜볼 게 있느냐' '그 지켜보는 놈은 누구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자기 근본을 믿고 거기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맡겨 놓으세요.

맡기는 것도 자기요, 해결하는 장본인도 바로 자기이니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응이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닥쳐오는 대로 맡겨 놓고 체험을 하고…, 그게 바로 돌 하나하나 올려서 탑 쌓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실험을 해 보세요.

잠자면서도 맡기는 방법

문 요새 스님의 법어집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글이 많아서 읽고 있으면 시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하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실생활에서는 의식이 있어 믿고 내려놓지만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주인공을 믿고 내려놓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행이 높아지면 몽중일여다 숙면일여다 해서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경지가 있다 하는데, 꿈속에서는 의식이 없어 주인공을 찾지 못해 무기에 빠지는 건 아닌지요? 우매한 대답인 걸 알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자면서 꾸는 것도 꿈이요, 생시에 사는 것도 꿈입니다. 그러니 꿈 아닌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잘되라고 할 때도 '꿈 잘 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잘 꾸고 못 꾸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언짢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나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나쁜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바꿔서 '나를 가르치는 꿈이요, 나를 이끌어주는 꿈이구나'하고 돌려서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이 그냥 밤에 잘 때 꾼 꿈이 아니라 바로 공부요, 그대로 실천인 것입니다. 그것이 24시간 참선인 것입니다.

또 생시에도 그렇습니다. 생시에도 무슨 생각이 들면, 이것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사방을 딱 둘러보고 이것이 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법입니다. 그것도 꿈이구요. 말에만 끄달려서는 절대 안되고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상시의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됩니다. 생활이 그대로 도라고 하는 도리를 반드시 증득하기 바랍니다.

어머니 위해 어떻게 마음 낼지…

문 저희 어머님은 한마음 선원 신도인데 7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곧 돌아가실 거라고 의사들이 준비하라고까지 하였으나 지금까지 근근이 살아오셨는데 최근 들어서 복수가 차고 심한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으로는 몸 바꾸실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조상님께 천도재도 올리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나 저는 딸된 입장이라 어떻게 관해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어서 몸 바꾸시라고 마음을 내야할 텐데 아직도 어머니가 안 계신 세상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스님의 가르치심 부탁드립니다

답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다고 모두 생각을 하는데 육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죽는 게 진짜 문제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건강하시니 죽고 살고를 떠나서 정말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군요.

우리 육신은 차와 같습니다. 운전수가 한 철 잘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걸로 바꿔서 또 다시 끌고 다니는 차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겉껍데기가 나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어머니의 보이는 모습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준비하실 수 있게 착을 놓으세요.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 어머님을 사랑하거든 본인이 마음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여여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참된 효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림 · 최주현

닥쳐오는대로 맡겨놓고 체험하며
나쁜생각도 근본자리 돌려놓아
24시간 생활이 참선되게 하세요

사랑하던 사람 잊혀지지 않아…

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털어내 버리려면 어떡해야 합니까? 이룰 수 없는데 보고 싶고, 그립고, 외롭고, 너무 괴롭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그만 툴툴 털어내고 편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놓으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는군요.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허서든 이루어지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인공에게 놓아야 할까요? 정말 너무나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큰스님, 제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답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 게 그냥 뜬금없이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엮어온 그 인연줄에 의해서, 그 인연에 따라 형성된 업식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그 관습에 매달려서, 그 인연줄에 매달려서 그냥 생각이 꼼짝을 못 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이루, 하고 눈에 불이 번쩍나게 되는 거죠. 그 업식때문인 걸 모르고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원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좋은 놈 싫은 놈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부부,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의 몸을 붙들지 말고 부부의 몸을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둘 아니게 놓고 슬기롭게 굴린다면 몸은 저절로 붙들어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化)해서 자비가 되고, 그렇게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거든 놔줘라, 부부지간에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보내줘라, 붙들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육신을 붙들고 함께 해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알고 보면 근본에서 나온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그 자리에 되돌려놓아야만 합니다. 나쁜 인(因)뿐만 아니라 좋은 인도 놓으라고 했는데 내 곁에, 내 소유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더욱 가당치도 않지요. 그러니 상대방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정말 후회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크게 한 생각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사랑을 넘어선 자비임을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친척 꿈속에 나타나

문 존경하는 큰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불교에서는 영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가신 친척분이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생각을 안 하려 해도 꿈에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가천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답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도분이 흉가집이라고 남들이 다 꺼려하는 집을 싸게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건 이 도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영에다 영을 넣으니까 영이 된 겁니다. 그대로, 수만 개의 영을 영에다 집어넣어도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산 사람도 마음이 있으니까 전부 결부되는 겁니다.

영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무(無)의 법이 따로 있고 유(有)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들이고 내는 자유로운, 자재로운 생각이 그대로 공법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이 생각나는 대로 내 안의 용광로인 나의 근본, 주인공에 다 넣어버리세요. '주인공, 조상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데 저렇게 체가 있는 줄 알고 매여있는 저분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게, 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게 하는 것도 당신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진실하게 관한다면 하나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했다고 안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알건 모르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진실하게 돌려놓기만 한다면 둘이 아니기에 넣어도 넣어도 늘어나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또 꺼내는 사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영령을 용광로에 집어 넣어서 공심, 공생, 공체가 된다면 오히려 더하고 덜함도 없이 따뜻하고,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으니 평화스러워 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님이 거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자기로서는 무척 다급해서 마음 내주기를 바라는데, 마음과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한 사이 없이 하고 오고 간 사이 없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보이고 들리는 대로 내 안의 근본에 전부 밀어 넣으세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시간이 나면 선원에 와서 법회도 참석하고 스님들과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보다 더 쉽게 해낼 수 있으니 자주 나오면서 열심히 정진하세요.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어요

문 저는 불교에 적을 둔지 7년 가량 되었으며 교직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고 생각되다가도 어떤 경계에 부딪치면 화가 오르고 성내는 말을 뱉아야 합니다. 구업으로 짓는 죄를 알기에 대인관계나 학생을 대할 때 좀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다시 나고자 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법이 필요할까요?

답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잘 못 나오든지 잘 나오든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잘 나오는 거는 '부드러운 말과 행과 뜻으로 애들을 대할 수 있게 이끌어 줘서 감사해!' 하고 또 잘 못 나오는 거는 '당신만이 부드러운 말과 행과 뜻으로 애들을 이끌어 가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놓으라구요.

그리고 업이니 죄니 하는 말들을 흔히 하는데, 업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업을 짓는 겁니다. 내가 함이 없이 하는데 업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데도 그 지혜가 안 돌아가는 게 바로 업이에요. 알고도 또 그렇게 되풀이를 하니 말이에요. 그러니 업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그 생각마저 근본에 몰락 내려놓고 훨훨 털고 자유스럽게 살아가세요.

관할 때 내 의지와 상관 없는지

문 제가 관을 할 때 '이렇게 오는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왔고 당신 것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제 1기 達摩禪法
자감(自感) 영통법사 교육 (전국지역지부지회 모집)

道理는 相生이며 道術은 弘益이니
達磨禪法으로 도를 覺하고 五行變化로 도리를 究하며
千手觀音으로 도술을 得함이 三尊修行이라
古往今來 병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으며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治方을 수행의 요체라 하니
靈動神氣와 神明自感이라. -白常 禪師-

【특 전】
· 연수 및 분기별 교육예정 · 본연합 연대사업 적극 지원
· 각 과정 수료시 지도법사 자격증 수여 · 장묘문화(화장, 납골) 사업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민박-세계관광 연대 사업
· 해외 법사 위촉 및 해외 활동지원 · 각종 사찰 불사사업 지원
· 각 지역 지부장 위촉 교육지도 할수 있음

【해외지원】
CIOI 중국(장백, 연길) JIOI 일본(도쿄, 하까다)CAIOI카나다(알브타)

【국내지부지회 (대모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 진주, 울산, 마산, 포항, 경주, 청주, 대도시 및 소도시

◆접 수 방 법: 이력서(사진첨부), 간단한 자기소개서 우편접수 및 팩스로 접수 하여야함
◆ 기 간 : 2000 수시 접수 가능함 (1차 2000.6.20까지)
◆1차교육수련회비: 30만원
◆계 좌 번 호 :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이 민택
※ 이력서 : 자기소개서,교육 수련회비, 입금표 접수한 분에 한하여 면접 상담 후 지역 지부장으로 추대코져함

세계 상생운동연합 ioi 달마선원 세계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전화 053)982-4976 팩스 053)983-9223

3개월 특별속성반 —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전통의식 수련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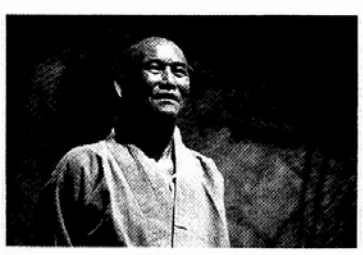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교전통의식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6시~8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우송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마감 : 2000년 6월 30일까지(현재 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개강일시 : 2000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은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법사양성 교육도량으로서 불교전통의식을 여법히 교수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속성 3개월 과정으로 특별 모집함

한국불교법사대학
전통의식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